

에스파·아이브·르세라핌·빌리, 왜 日 멤버는 흔한 일 됐나

4세대 걸그룹 일본인 멤버 활약 눈길 '가루피스', 한일 혼종 K팝 문화의 하나

지젤(에스파), 레이(아이브), 사쿠라·카즈하(르세라핌), 마시로·히카루(케플러), 츠키·하루나(빌리), 리리카·하나(아일리원)

최근 4세대 K팝 걸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다수 포진돼 눈길을 끈다. 이들은 능숙한 한국어와 눈에 띄는 외모·실력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물론 1997년부터 시작된 1세대 걸그룹 시절부터 일본인 멤버가 포함돼 있었다. 'S.E.S'에 재일교포 출신 수가 있었고, 1.5세대 걸그룹 '슈가'에 합류한 아유미는 팀에 대한 주목도 이상으로 눈도장을 받았다. 1998년에 아시아 첫 한일(韓日) 합작 아이돌 걸그룹 '썬클'이 등장했다.

2세대엔 걸그룹 멤버 국적이 다변화된다. '소녀시대' 티파니·제시카, '카라' 니콜, '2NE1' 산다라박 등 일본이 아닌 해외 교포 등이 대거 포함됐다. 'f(x)'엔 대만계 미국인 멤버와 중국인 멤버 빅토리아가, '미쓰에이(MISS A)'엔 중국인 페이·지아가 포함돼 있었다.

3세대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좀 더 다채로워진다. '트와이스'엔 사나·미나·모모 등 일본인 멤버 3명과 함께 대만 멤버 쥬이, '블랙핑크'엔 태국 멤버 리사가 포함돼 있다. '씨엘씨(CLO)'엔 태국인 손, 중국인 엘키가 있었다. '우주소녀' 역시 데뷔 초창기 중국인 3명이 함께 했다. 3.5세대로 분류 가능한 '아이즈원'은 한일 합작 그룹이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4세대 걸그룹엔 일본

인 멤버 합류가 흔한 일 됐다.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예 걸그룹 '엑스지(XG)'의 경우 일곱 멤버 전원이 일본인이다. '니쥬' 역시 전원 일본인 구성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JYP엔터테인먼트가 프로듀싱한 K팝 걸그룹으로 분류된다.

빌리 멤버 츠키가 일본 내 한류 개척자로 통하는 '아시아의 별' 보아(BOA)를 롤모델로 삼은 것에서 보듯, 일본의 10~20대들은 K팝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운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소녀시대·카라, 트와이스·블랙핑크로 이어지는 2~3세대 대표 한류 걸그룹들은 일본 청소년들의 롤모델로 통했다.

특히 아이즈원 일본인 멤버들 상당수가 소녀시대를, 아이즈원 출신으로 현재 르세라핌에 몸 담고 있는 사쿠라는 레드벨벳을 롤모델로 꼽기도 했다.

최근 두 번째 싱글 '마스카라(MASCARA)'를 발매한 XG 멤버들은 소속사 재이콥스(XGALX)를 통해 "5년 전 연습생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해왔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연습을 하고 데뷔를 한 지금까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진 K팝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인정받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황선혜 정보경영이노베이션전문직대학(iU) 객원교수(전(前)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일본센터장)는 최근 K팝 걸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다수 포함된 현상에 대해 "K팝이 철저하게 시스템화·모듈화됐기 때문"이

라고 봤다.

일본은 세계 단일국가 음악시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에 올라 있다. '자발적 음악산업' 역사도 깊다.

황 교수는 "일본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프로듀싱 시스템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라고 봤다. 보아, 트와이스를 통해 성숙·축적된 노하우가 니쥬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음악은 드라마, 영화와 달리 현지 전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장르다. 자막만 현지어로 하는 로컬라이즈와 음악은 전혀 구조가 다르다. 번역만으로 음악세계관을 전달할 수 없다. 라이브라는 흥행수익이 큰 산업인만큼 시대상황과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이 민감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일본인 멤버의 그룹 탄생은 K팝의 글로벌 전개의 진화와 시스템화 발전"이라면서 "인적교류와 산업교류를 통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이 수익을 다 가져간다는 옛날 스타일의 비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음악은 무국적과 혼종적 매력이 동반되는 장르라는 얘기다.

황 교수는 "드라마·영화는 제작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사회적 배경, 사회상이 하나의 불거리와 메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인류의 보편성으로 성공을 끌어내야 하는 장르다. 그런데 음악은 아니다. 세계적 트렌드와 무국적, 혼종적 매력이 요구되고 어느 나라 음악을 들어야지 보다는 듣다보니 한국 거, 일본 거다. 영어 가사를 넣는 이유도 그렇다"고 풀이했다.

최근 K팝 문화에서 한국과 일본의 혼종



적 매력을 보여준 사례는 '가루 피스'다. '가루'는 걸(Girl)의 일본식 발음이다. 태닝한 피부·짙은 눈화장·금발 등이 상징이었던 1990년대 일본에서 유행했던 패션 문화다. 평화를 뜻하는 피스는 손가락으로 만드는 '브이(V) 포즈'를 가리킨다.

가루 피스는 이 브이를 뒤집은 포즈로, 가루족들이 주로 사진을 찍을 때 취한 동작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이브 일본인 멤버 레이가 K팝 문화이자 'MZ세대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최근 다른 K팝 4세대 걸그룹 사이에서도 이 동작이 유행했다.

일부에선 한때 일본에서 유행한 문화를 수용하는 게 한국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긴 하다. 하지만 엄지·검지 손

가락을 이용해 만드는 K-하트가 일본 등지에서 유행하는 것을 보면 문화 혼종이라는 해석에 더 설득력이 실린다.

황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생각 외로 스피드가 엄청나다. 지금 일본 스타들이 사진 포즈를 정할 때, 손가락 하트포즈를 종종 택한다"면서 "지금 SNS로 한국과 일본이 실시간으로 정보교류가 가능한 시대에 혼동과 흡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가루피스는 일본의 서브컬처 등으로 설명 가능하겠지만 문화 행위에 대해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10~20대는 '왜'라는 질문에 힘들어한다.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재미와 귀여우니까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신동엽·김이나 등 '19금 토크' 예고



19금으로 돌아온 티빙 오리지널 '마녀사냥 2022'가 매운맛 토크를 펼친다.

8일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마녀사냥 2022'는 날 것 그대로의 현실 연애의 모든 것

'마녀사냥 2022' 매운맛 토크

을 다루는 연애 토크쇼다. 전국에 그린라이트 열풍을 일으켰던 '마녀사냥'이 7년 만에 국내 OTT 티빙 오리지널로 더 강력하게 컴백할 예정이다.

이보다 더 솔직할 수 없는 '19금토크' 토크로 재미와 공감할 사냥할 준비를 마친 가운데 첫 녹화 현장 사진이 5일 공개됐다.

사진 속 전세대를 아우를 MC군단 신동엽 김이나·코드 쿤스트·비비는 화기에애한 분위기다. MC 4인은 첫 녹화임에도 친한 친구처럼 현실 연애 이야기를 거침 없이 나눴다는 후문이다.

김이나는 "저와 신동엽 선배님의 조합을 기대하더라"면서 "'새로운 음란 개그'의 조합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예고했다. 신동엽 역시 "정말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 수다 떠다 가는 느낌"이라고 흡족했다.

'마녀사냥 2022'는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연애 고수이자 토크 맨틀 MC들을 중심으로 매혹적인 게스트가 출연할 예정이다.

신구·서인석·서상원·정동환·남명렬, 연극 '두 교황' 출연



배우 신구, 서인석, 서상원, 정동환, 남명렬이

교황 베네딕토 16세·프란치스코의 실화 바탕

오는 8월 개막하는 연극 '두 교황'에 출연한다.

이 작품은 자진 퇴위로 바티칸과 세계를 뒤엎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뒤를 이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공연은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의 극작가 앤서니 매카튼의 원작으로 2019년 8월 영국 로열앤덴게이트에서 연극으로 초연됐다. 2020년 넷플릭스 영화로 제작됐으며 제92회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골든 글로브 등 주요 영화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됐다.

교황 빅토르 2세 이후 950년 만에 선출된 독일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방향을 고수하는 반면 고향이를 좋아하고 수준급 피아노 실력을 갖춘 파산한 성품으로 유명하다. 그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588년 만에 자진 퇴위를 선택했다. 데뷔 61년차로 200편 이상 작품에 출연한 신구를 비롯해 서인석, 서상원이 출연한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남미, 예수회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는 개혁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신념을 지녔다. 낡은 구두를 신고, 흰 가방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 피자를 즐겨먹고, 아르헨티나 출신답게 축구와 탱고를 즐기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이어 266대 교황으로 선출된다. 정동환, 남명렬이 캐스팅됐다.

베네딕토 교황이 매우 신임하며 올곧은 말로 교황의 중심을 잡아주는 브리지타 수녀 역에는 정수영이 함께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젊은 시절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역은 조취가 맡는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의 신념을 따르는 강직한 소피아 수녀 역은 정재은이 연기한다.

전세계 최초 라이브 공연으로 8월30일부터 10월23일까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아다마스' 서지혜, 우아함 속 차가운 눈빛

오는 27일 tvN 첫방송

배우 서지혜가 집안의 파멸을 고대하는 머느리로 색다른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5일 tvN 새 수목드라마 아다마스 측은 한국 병원 병원장 무남독녀 외동딸이자, 대기업 해송그룹의 머느리로 변신한 배우 서지혜의 첫 스틸을 공개했다.

먼저, 서지혜가 분한 은혜수는 해송그룹 차남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사랑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장남인 권현조와 결혼을 하게 된 비운의 사연을 지녔다.

애정 없는 결혼을 이어가던 그의 삶은 독으로 가득 차게 된다. 순진무구했던 은혜수는 해송그룹의 머느리로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집안에 쫓는 냉소도 심해진다. 그러던 찰나 하우신(지성 분)을 통해 해송그룹에 복수할 기회를 포착하게 되지만 그의 조력자가 될지, 혹은 이를 이용한 새로운 판을 짜게 될지 미스터리한



그녀의 행보가 의구심을 키운다.

이와 함께 공개된 스틸 속 은혜수는 아름답고 고아하지만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의미 없는 일상에 지쳐버린 히스테릭한 눈빛은 타인을 향한 높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살아가려는 어떤 의지조차 없던 은혜수가 하우신의 등장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아다마스'는 오는 27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된다.

손현주·장승조 변했다...2년 지난 '모범형사2' 스틸컷 공개

오는 30일 JTBC 첫 방송

이번에는 장승조가 트라우마에 빠진 손현주를 현장으로 이끈다.

5일 JTBC '모범형사2' 측은 강도창(손현주 분)과 오지현(장승조 분)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모범형사2'는 선(善) 넘은 악(惡)인들의 추악한 욕망 앞에 진실로 하나로 맞선 강력2팀 모범형사들의 대역전 수사극을 표방한다. 지난 시즌1에서 도창과 지현은 각각 수사보다 사람이 먼저인 인간미 감 형사와 수사를 제대로 해야 사람을 지킨다는 병철한 이성을 가진 형사로 만나 상극 케미를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물과 기름 같았던 두 형사를 공고히 엮어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가 된 이들은 환상의 파트너로 힘을 합칠 예정이다.

이런 도창과 지현에게 2년여간의 변화가 있다. 먼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20년 차 베테랑 형사 강도창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 시즌1에서 자신이 제후한 무고한 사형수 이대철

이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후 범인을 잡을 때마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일까?"라는 자문을 해 강력반 형사인 그에겐 치명적 약점으로 떠올랐다.

트라우마에 갇힌 채 찾아와 더 소심해진 도창이 말년엔 좀 더 편하게 내근할까 고민했지만 지현이 거머리처럼 찾아와 그를 사건 현장으로 이끈다.

지현에게선 이전과 다른 여유와 웃음이 생겼다. 이전까지 지현은 형사는 오직 범죄자를 잡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광수대 출신의 엘리트 형사였다. 하지만 인천 서부서에서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파트너 강도창과 너무나도 끈끈한 강력2팀 동료들로 인해 이전과 다른 신념과 감정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전 이대철의 딸 이은혜(이하은)를 가족처럼 감싸주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감도 한다. 동료 형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신경 쓴다. 물론 여전히 돈이 많고 가족 하나 없는 홀몸이라, 금전



적 유혹도, 외부 압박도 통하지 않는 건 형사로서의 큰 무기다. 병철한 이성에 인간미까지 추가된 지현이 이번엔 되레 파트너 도창을 수사 현장을 끌어들여 악의 현장을 누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촬영을 마친 '모범형사2'는 30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한다.